

제 52대 학생회 총선거 마무리 선관위장 해임, 공약무단취득 발생

〈외국어대학〉

〈노하우 선본〉

이후승 기자 hooseung.lee@khu.ac.kr

지난달 28일 서울캠퍼스(서울캠) 청운관에서 진행된 개표를 마지막으로 양 캠퍼스 제 52대 학생회 총선거가 마무리됐다. 서울캠을 이끌어 갈 제 52대 총학생회(총학) 선거에서 기호 2번 무빙 선거운동본부(선본) 최인성(생물학 2016) 정후보와 정경원(회계세무학 2016) 부후보가 당선됐고 국제캠퍼스(국제캠)를 이끌어 갈 제 52대 총학 선거에서는 기호 2번 WORKHUMAN(워쿠맨) 선본 양성민(원자력공학 2015) 정후보와 이소영(체육학 2016) 부후보가 당선됐다.

국제캠 총학 선거 투표율은 64.8%였고 기호 2번 워쿠맨 선본은 58.8%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제 52대 서울캠 총학 선거에서는 예정된 개표일이었던 11월 29일에 투표율이 48.0%로 50%를 넘지 못해 투표가 하루 연장됐다. 그리고 다음 날 51.1%의 투표율을 기록해 개표가 진행됐다. 그 결과 기호 2번 무빙 선본이 43.8%의 득표율을 기록해 당선됐다.

양 캠퍼스를 이끌어갈 학생 대표자 선출로 모든 선거가 마무리됐지만 그 과정은 매끄럽지 못했다. 국제캠에서는 선거 기간 중 외국어대학(외대) 선거관리위원회 최지현(프랑스어학 2015) 위원장이 해임됐고 서울캠에서는 선본 간 공약 무단 취득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달 20일 국제캠에서 진행된 단과대학 및 특별대표기구 개표에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선관위) 이지는(산업경영공학 2015) 위원장은 외대 최위원장의 해임을 발표했다. 이 날 이 위원장은 “최 위원장이 선거준비기간 중 특정 선본 및 후보자를 지지하고 선거



에 개입 및 유착 관계 정황이 의심되는 제보가 왔다”며 “중선관위로서 정치·이념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선관위장 해임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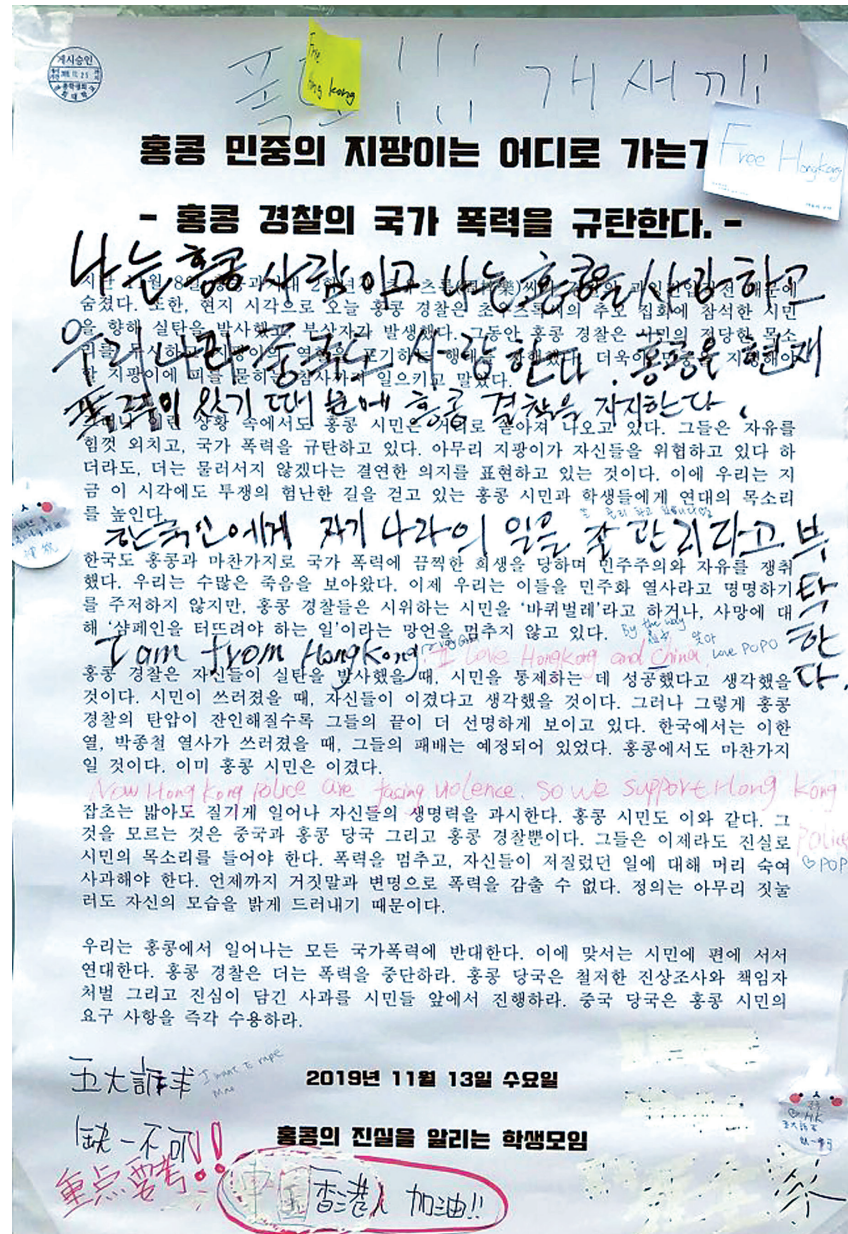
서울캠에서는 선본 간 공약 무단 취득 사건이 일어났다. 정경대학 문형일(정치외교학 2015) 회장은 제 52대 총학 선거 출마를 위해 ‘다음’ 선본을 꾸렸으나 정경대학 회장 사퇴 과정에 착오가 있어 출마가 불발됐다. 이후 다음 선본에 있던 일부 선본원이 ‘Know_How’(노하우) 선본으로 이동했고 그 과정에서 노하우 선본의 참모가 “노하우 선본으로 올 때 다음 선본의 정책을 갖고 올 수 있다”라는 농담을 던졌다. 그 결과 다음 선본의 5대 공약과 그 외 공약집 관련 파일이 노하우 참모진 대화방에 업로드 됐다. 대화방에 참여하고 있었던 노하우 선본 강연정(경영학 2017) 정후보와 전준필(경영학 2015) 부후보는 해당 파일이 업로드 된 사실을 인지했고 파일의 내용을 확인했다. 이후 파일의 열람을 금지하거나 폐기하는 등의 조치가 없었고 다음 선본 측에 선제적인 연락을 통한 조치를 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지난달 22일 다음 선본의 참모였던 김도엽(정치외교학 2016) 씨와 김병준(경제학 2015) 씨는 노하우 후보자가 위와 같은 부정한 습득 과정을 묵인해 도덕성과 자질에 의문이 든다며 대자보를 작성하고 배포했다. 이에 중선관위는 대자보 철거를 서면 경고로 공

지했다. 중선관위 김수혁(자율전공학 2016) 위원장은 “당시 대자보 철거 요구 근거로 두 가지를 제시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대자보 작성 주체를 개인이 아닌 ‘선본’이라 칭했기 때문에 일반적 의견 개진으로 보기 힘들다는 것”과 “중선관위 의결 및 법적 자문 결과 목적의 방향이 무엇이 됐건 해당 대자보 표현으로 적어도 후보자를 낙선시키려는 의사로도 해석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후 지난달 25일, 대자보 내용의 공식적인 ‘확인(조사 혹은 수사 등)’과 그 결과에 따른 노하우 선본 제재 의결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제보가 중선관위 공식계정에 전달됐다. 중선관위는 다음 선본에 4개의 확인 질문을, 노하우 선본에는 25개의 확인 질문을 보냈고 현재 그 답변을 모두 받은 상태다.

김 위원장은 “수사와 징벌 관련 세칙이 중선관위에 없기 때문에 위 사항은 의결을 통해 진행되어야 한다”며 “노하우 선본 징계 논의가 지난달 22일 제3차 중선관위 회의에서 진행됐다”고 말했다. 다만 “노하우 선본에 징계를 내릴 수 있는 명확한 판단 기준, 세칙, 준거가 없어 의결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김 위원장은 본 사안에 대해 “확인 및 정리가 완료되는 대로 다음 선본과 노하우 선본에 보낸 확인 질문 관련 답변 게시 수준의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훼손된 대자보 훼손된 의견

지난달 21일 서울캠퍼스 노천극장 앞 중앙 대자보 게시판에 붙어 있던 대자보가 훼손됐다. 해당 대자보는 ‘홍콩의 진실을 알리는 학생모임’이 게시한 것으로, 홍콩 시위를 지지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었다. (관련기사 3면)

퍼스널 모빌리티, 실효성 있는 수칙과 안전 인식 필요

박창원 기자 macpark342@khu.ac.kr

【국제】 최근 총무관리처에서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 이용 안전수칙을 게시했다. 총무관리처 총무팀 이우휘 팀장은 “최소한의 도로교통법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안전수칙 게시의 배경을 설명했다.

퍼스널 모빌리티란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을 포함한 개인용 이동수단을 지칭하는 말이다. 하지만 이용객 급증에 따라 안전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지난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사고는 528건이다. 총무관리처에 따르면 우리학교에서 공식적으로 퍼스널모빌리티 사고가 보고된 바는 없다. 그렇지만 우리학교에서도 무단횡단, 역주행, 2인 이상 탑승 등으로 인해 교내 운전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는 상황이다.

학교 측으로부터 안전수칙은 게시됐지만 이를 강제할 관계 법령은 없다. 대여업체 등에서 고지하는 수칙도 기초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면허증을 인증하지 않아도 간단한 회원가입만으로 이용할 수 있다. ‘지빌리티’ 관계자

는 “무면허 운전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도움을 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수칙의 실효성 문제도 제기된다. 평소 퍼스널모빌리티를 이용한다는 박주영(국제학 2018) 씨는 “전동킥보드를 대여할 때 헬멧이 구비돼있지 않아 쓰지 않고 탄다”고 말했다.

총무관리처 이 팀장은 “법적인 문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동킥보드를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시설이 마련된 것도 아닌 상황이라 위험하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용자가 도로교통법을 인지하고 준수해 이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지면안내

대자보 훼손, “홍콩경찰 지지한다”

홍콩 시위 지지 대자보 훼손

» 3면

대학 특성 못 살리는 지표…내실 기하는 ‘참고’ 삼아야

2019 중앙일보 대학평가 세부 지표 분석

» 6면

“이제는 새로운 총장과 함께 미래를 가꿔나가야 할 때”

임기 마지막 앞둔 박영국 총장 직무대행 인터뷰

» 8면

알림

※ 이번 호가 2학기 종간호입니다